

Staff |

예술총감독 및 안무 - 최선

연출 - 최석열 / 시나리오 - 홍승광

나레이션 - 더소리 / 음악 - 시온성

조명 - 아이비엔터테인먼트 / 의상 - 미스터리

무용지도 - 박해정, 김진희, 윤영아

천계의 여인 오녀 - 김진희 / 지상의 남자 오공 - 김건호

오녀를 탐하는 곤륜 - 김동권

천상의 새 가루라 - 신시연

출연진

박해정, 윤영아, 이윤지, 김솔해, 이유리, 이해자, 신지영, 박승희
차예지, 강민지, 이예진, 이지원, 송주연, 김진선, 김승은, 양수경
임소연, 한해진, 이서연, 조서윤, 한지현, 윤소희, 김지환, 임규성

스텝

이소아, 송나현, 임다인

오시는 길/약도 | 공산성 : 충남 공주시 웅진로 280



백제 미마지 탈이온다! 이벤트 |

무용창작극 백제 미마지 탈이온다
공연사진을 SNS에 올려주시면
공연이 끝난 뒤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백제춤전승보존회 소개 |

백제춤전승보존회는 한국전통무용 전공자들과 공주지역민, 예술인,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무용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단체이다. 2012년 공주의 문화, 역사, 인물 등을 소재로 한 공주의 브랜드 “공산성 춤”을 시작으로, 백제기악 ‘사마의 꿈’ (2015), 오공· 오녀 사랑이야기’ (2017), ‘사랑 사랑 오녀 내 사랑’ (2018), 야간상설공연 ‘백제 미마지 탈이온다’ 등의 무용극을 제작하였다. 백제의 유일한 무형유산인 ‘백제 기악’ 미마지 탈극과 공주의 전설 ‘고마’는 공주에서 손꼽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이다. 이 단체는 지역민의 자긍심으로 백제와 공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연 활동

- 2018 야간상설마당 ‘백제 미마지 탈이온다’
- 2018 백제어울마당 ‘사랑 사랑 오녀 내사랑’
‘출추는 오악사’, ‘백제 버스킹’
- 2017 야간상설시연공연 ‘백제 미마지 탈이온다’
‘공산성 꽃피우다’ 백제어울마당 ‘오공·오녀 사랑이야기’
- 2016 일본 ‘스와츠마츠리’ 축제 참가 ‘백제춤’ 시연
- 2015 찾아가는 문화활동 백제기악 ‘오공·오녀전’
- 2014 ‘백제춤’ 콘텐츠 개발
- 2011 백제기악 미마지 ‘무명에서 배를 타다’
- 2010 무대지원사업 ‘백제기악’ 공연

공산성춤

- 2018 일곱번째 공산성춤 무용극 백제기악 ‘나르새백제미마지탈’
- 2017 여섯 번째 공산성춤 무용극 백제기악 ‘사마, 혼 불이 되어’
- 2016 다섯 번째 공산성춤 무용극 백제기악 ‘사마의 꿈 영웅귀환’
- 2015 네 번째 공산성춤 무용극 백제기악 ‘사마의 꿈’
- 2014 세 번째 공산성춤 강구연월(康衢煙月)을 노래하다
- 2013 두 번째 공산성춤 공산성이여! 영원하라
- 2013 첫 번째 공산성춤 공산성이여! 영원하라

백제춤전승보존회

Tel. 041-850-8341



Facebook

<https://www.facebook.com/백제춤전승보존회-180947799374898/>

2019 야간상설마당

2019 Nightly standing performance

무용창작극

백제미마지
탈이온다

Dancing creative play,

The Artist of

Baekje Mimaji's Mask is

Coming



2019. 5. 25. SAT - 10. 12. SAT

격주 토요일

PM 8:00

공산성 곰탑 야외무대

outdoor stage of Park Gomtop in Gongsanseong Fortress

주최 | 공주시 주관 | 백제춤전승보존회

백제미마지 탈이 온다

The Artist of
Baekje Mimaji's Mask is
Coming

백제미마지기악 |

백제 미마지 기악은 백제 예술인들의 궁중에서 펼쳤던 화려한 연희로 악,가,무가 합쳐진 종합예술이었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612년 백제인 미마지가 기악을 일본에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기가쿠를 탄생시켰고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백제 기악은 1400년전 일본에 꽃핀 한류의 원조이며, 백제의 정신과 숨결이 담겨있다. “미마지 탈이 온다”는 옛 선인들의 예술혼을 담아 백제기악의 인물인 오공, 오녀, 가루라, 곤륜, 취호종 등을 등장시켜 난버벌 뮤지컬 형식으로 창작화한 공연이다.

the instrumental music of Mimaji

Mimaji's instrumental music was a splendid performance by Baekje's artists at the Court. It was also a composite art that was a combination of music, song and dancing. According to the history records, Mimaji who was an instrumentalist of Baekje created Gigaku in Japan by spreading instrumental music to Japan in 612 and received highly artistic recognition. Baekje instrumental music is the origination of Korean Wave in Japan over 1400 years ago and it contains the spirit and breath of Baekje. This performance is based on the non-verbal musical version that is created by the performing team. In addition, it embodies passionate soul for art of our ancestors. This play also features the characters of Baekje instrumental music such as Oh-Gong, Oh-Nyu, Garura, Gollyun and Chwi-Hojong.

공연내용 | 백제미마지탈이온다

Performance planning | Mimaji's mask is coming

1장 _ 천상 속에 깨어난 천년의 탈

Chapter 1 - The mask of a thousand years that awoke from the Heaven

어둠이 걷히며 천년의 세월을 넘어 백제의 수호신들(미마지 탈)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백제의 시조 새는 해상왕국 백제의 상징으로 부활을 알리며 불사조로 하늘로 날아오르고, 신비로운 천상 세계의 신들이 천상과 지상의 평온을 기리는 신비로운 축제를 펼친다. 축제가 마무리되면서 신들은 떠나는데 지상세계를 동경하던 호기심 많은 오녀가 수호신들의 눈을 피해 지상세계로 내려온다.

2장_지상에서의 사랑

Chapter 2 - The love on earth

가루라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 호기심 많은 오녀는 신기하고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 든다. 그리고 우연히 지상세계의 곤륜과 오공의 무리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사냥꾼들로부터 가루라를 지키기 위해 화살을 오녀가 막으려는 순간, 이를 본 오공과 오녀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두 사람의 만남은 설레는 사랑으로 피어난다. 그런데 곤륜은 천신 오녀의 아름다움에 빠져 질투로 흑심을 갖기 시작한다.

3장_분노한 곤륜과 오녀의 절규

Chapter 3 - The cries of Gollyun and Oh-Nyu in anger

오녀에 대한 욕망과 오공에 대한 질투에 빠진 곤륜은 오녀를 납치한다. 그러나 오녀는 이러한 곤륜의 구애를 거절하고, 이에 분노한 곤륜은 그녀를 감금하기에 이른다. 절규하는 오녀의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며 이를 들은 오공은 자신의 사랑을 구하고자 곤륜과의 결전을 준비한다.

4장_수호신이 된 오녀탈

Chapter 4 - Turning from Oh-Nyu's mask into a guardian

오녀를 구하고자 결전을 다짐한 오공과 무리들은 함께 곤륜의 무리들을 쫓아가 격심한 결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이때 끌려나온 오녀는 천계에서 쓰고 온 자신의 탈을 찾아내자 천동 번개가 치면서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춰진다. 오녀는 자신의 탈을 들어 하늘에 비추며 천계의 힘을 빌린다. 그리고 자신이 천계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오녀의 탈을 쓴 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유유히 천계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5장_미마지, 천년을 여는 평화의 제전

Chapter 5 - Mimaji, the festival of peace heralding a new millennium

이 땅에 되살아난 오녀 탈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펼쳐진 것이 한 순간의 꿈인 듯, 백제의 수호신(미마지 탈)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다. 새 세상이 열린 이 땅에 태평성대를 기리는 대화합의 제전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흥겹고 역동적인 축제를 벌인다. 미마지 탈이 천년을 뛰어 넘어 백제의 고도 공주에서 되살아나 그 유려하고 아름다운 백제의 문화를 화려하게 다시 꽃피우는 순간이다.

